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2019. 4. 10. ~ 4. 19. (8박 10일)

선진 4차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 < 국외연수 요지 >

- ◆ 기 간 : 2019. 4. 10. ~ 4. 19.(8박10일)
- ◆ 국 가 : 3개국(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 ◆ 참 가 자 : 13명(도 1, 시 · 군 12) /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담당자
  - 우리 군 : 민원봉사과 공간정보주소팀 최신규
- ◆ 주요 연수내용
  - ① 선진국 공간정보 활용실태 등 사례조사
  - ② 노인복지정책 브리핑 청취



민원봉사과  
(공간정보주소팀)



이 보고서는

2019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8박 10일간 선진국들의 GIS 공간정보 기술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례조사를 위해 관련기관 방문과

- 공간정보의 세계적인 기술 정보 수집
- 지적 및 측량 각 분야에 관한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 각국의 지적제도 및 지적관련 자료 수집
- 노인복지정책 브리핑 청취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개선·발전과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코자 공무국외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4.

민원봉사과 공간정보주소팀 최신규

# 목 차

I. 연수방향 .....	2
1. 연수목적 .....	2
2. 연수개요 .....	2
3. 주요일정 .....	4
II. 방문국가 개요 및 일반사항 .....	5
1. 체코 .....	5
2. 오스트리아 .....	6
3. 독일 .....	7
III. 주요기관 방문내용 .....	8
1. 프라하시청 CAMP .....	8
2. 오스트리아 빈 콜핑 복지센터 .....	10
3. 독일 뮌헨시청 지적공간정보센터 .....	12
4. 독일 마인츠 주립 토지개발공사 .....	15
IV. 시사점과 발전방향 제시 .....	17
1. 체코의 지적개혁 .....	17
2. 오스트리아의 복지정책 .....	17
3. 독일의 공간정보제도 .....	18
V. 연수를 마치며 .....	19

#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 ❖ 4차 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적·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사례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융·복합행정을 통한 행정혁신과 대민서비스 고품질화에 기여하고자 함.

I

## 연수방향

### 1. 연수목적

- 선진국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연구로 충남도의 공간정보사업 주도적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선진사례를 통하여 지적제도 및 공간정보서비스 운용사례를 파악하고, 우리 道 정책에 접목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미래 준비를 위한 선진사례 견학 및 4차 산업과 지적측량 등을 접목한 융·복합 사례 발굴
  - 지적·공간정보 분야 선진사례 조사 · 분석하여 개선 · 발전방안 모색

### 2. 연수개요

- 연수일정 : 2019. 4. 10.(수) ~ 4. 19.(금) (8박 10일)
- 방문국가 : 3개국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 지적제도 운영실태, 공간정보플랫폼 및 공간정보 구축, 융 · 복합 서비스 활용 사례조사, 노인복지 및 출산장려 정책 등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 연수인원 : 13명(도 1, 시·군 12)
- 연수대상 : 시군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업무 담당자
- 경비부담 : 소속 지자체(기관)별 자체 부담
- 연수내용 : 연수국가 기관 및 관련기업체 등 방문,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정보 공유, 관계자 면담 및 자문
- 연수자명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계		13명	
1	충남도청	지방시설5급	고재성	남
2	천안시 동남구	지방시설6급	김경열	남
3	공주시	지방시설7급	허지영	여
4	보령시	지방시설6급	임재진	남
5	아산시	지방시설6급	김호중	남
6	논산시	지방시설6급	이정범	남
7	계룡시	지방시설6급	이병후	남
8	금산군	지방시설6급	곽홍용	남
9	부여군	지방시설6급	임주상	남
10	청양군	지방시설7급	정승호	남
11	홍성군	지방시설6급	이성원	남
12	예산군	지방시설7급	최신규	남
13	태안군	지방시설7급	주영진	남

### 3. 주요일정

일자	지역	일정
1일차 4.10.(수)	인천 프라하	○ 인천 국제공항 출발(12:45) / [항공편 KE935] 11시간10분소요 → 프라하 국제공항 도착(16:35) *시차 - 8시간
2일차 4.11.(목)	프라하	○ 프라하 시청-도시개발 갤러리(CAMP) 방문 - 공간정보 구축방법 및 시스템 활용 관람 - 체코 지적제도(토지개발 방식 등) 설명 청취
3일차 4.12.(금)	프라하 비엔나	○ 저출산/양극화 정책 복지시설 방문(콜핑) - 콜핑 하우스 시설 안내 청취 - 콜핑 하우스 프로그램 및 시설물 관람
4일차 4.13.(토)	비엔나 잘츠부르크	○ 문화탐방-쇤부른 궁전과 정원
5일차 4.14.(일)	잘츠부르크 할슈타트 장크트길겐 잘츠부르크	○ 문화탐방-호엔잘츠부르크성, 대성당, 구시기지, 볼프강 유람선
6일차 4.15.(월)	잘츠부르크 뮌헨	○ 뮌헨시청-지적정보 서비스센터 부서 방문 ○ 문화탐방-BMW박물관, 슈바빙거리, 영국정원, 마리헨 광장
7일차 4.16.(화)	뮌헨 뉘렌베르크 로텐부르크	○ 문화탐방-성 로렌츠 교회, 미의 분수, 카이저부르크, 바이샤 탑, 슈란넨 광장
8일차 4.17.(수)	로텐부르크 뤼데스하임 프랑크푸르트	○ 문화탐방-독일 통일 기념비, 드로셀카세(종달세거리), 로렐라이 바위 탐방
9일차 4.17.(수)	프랑크푸르트 마인츠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 주립 토지개발 공사(LLB) 방문 ○ <b>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19:40) / [항공편 KE 906] 10시간15분소요</b>
10일차 4.17.(수)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12:50) 및 해산

## 1. 체코 (Czech)



### 국가개요

정식 국가 명칭은 체코공화국(The Czech Republic)이다. 체코어로는 체스카레푸블리카(Česká republika)라고 한다.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체로 분리 독립하였다. 체코의 국명은 고대 동유럽으로부터 이주하여 중부 보헤미아 지방에 정착한 '체코'족에서 유래하였다.

국토의 면적은 7만 8864km<sup>2</sup>로 한반도의 1/3이며 평지와 산악의 비율이 7대 3이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에 둘러싸인 중부유럽의 내륙국으로 북위 48°~51°, 동경 12°~19°에 위치한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 지대이며 연평균 기온은 프라하(Prague, Praha) 지역 기준으로 10.4°C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456.5mm (프라하 지역 기준)이다. 봄과 가을은 한국 날씨와 비슷하며, 여름은 한국보다 습도와 온도가 낮고 겨울은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서 눈과 비가 자주 내린다.

인구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1,051만 명이다. 민족 구성은 체코인(95.8%), 우크라이나인(1.3%), 슬로바키아인(0.7%), 베트남인(0.6%), 폴란드인(0.2%)이며 기타 민족이 1.4%를 차지한다. 수도는 프라하로 2008년 현재 약 122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지방 도시로 36만 명이 거주하는 브르노(Brno), 34만 명이 거주하는 오스트라바(Ostrava) 등이 있다. 언어는 체코어이며 종교는 가톨릭이 39.2%, 무신론자가 40%, 기타 종교가 11.2%이다.

### ■ 일반사항

국명	체코 공화국(영문: TheCzechRepublic, 현지어: Česká Republika)
위치	북위 48-51도, 동경 12-19도(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접경)
면적	78,864km <sup>2</sup> (한반도의 1/3, 산악: 평지=3:7)
기후	대륙성 기후. 겨울이 비교적 온화, 여름이 무덥지 않음(연평균 9-10도)
수도	프라하(Praha)
인구	1,051만 명
민족(인종)	체코인(94%), 슬로바키아인(2%), 기타(4%)
언어	공용어: 체코어 / 상용어: 영어, 독어
종교	가톨릭(39.2%), 개신교(6.2%), 흐烈 정교(3.4%), 무교(40%), 기타(11.2%)
건국일(독립일)	1918. 10. 28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독립)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실권자)	클라우스(Vaclav Klaus) 대통령(2008.3 재선, 임기 5년)

## 2. 오스트리아 [Austria]



### 국가개요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이다. 북쪽으로 독일·체코, 동쪽으로 헝가리·슬로바키아, 남쪽으로 슬로베니아·이탈리아, 서쪽으로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접한다. 유럽의 6개 영세중립국 중 하나이며, 헌법에 영속적 중립성을 명시했다. '동쪽 제국(eastern empire)'이라는 뜻의 국명은 독일어(語)로 'Österreich'라고 하며, 'Old German Ostarrichi'에서 유래했다. 행정구역은 9개주(Bundesland)로 되어 있다

국명이 '동쪽의 나라'라는 뜻의 '외스터라이히'에서 비롯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1278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속령이 되었으며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고 강력한 절대주의 국가를 형성하여 중부 유럽을 지배하였다.

1867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건설하여 지금의 동부유럽 및 소련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지배 했다. 그러나 제 1차 세계 대전에 패함으로서 국토는 전쟁전의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2차 세계 대전에도 패해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가 1955년 조약에 따라 영세 중립국으로 독립하였다.

현재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적 연방 공화국으로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은 9개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산업은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의 서비스이며, 알프스산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도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 ■ 일반사항

국명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
위치	유럽 중부, 슬로바니아와 이탈리아의 북쪽
면적	83871
수도	빈(Vienna)
인구	8,219,743
민족(인종)	오스트리아인(91.1%), 유고슬라비아인(4%), 터키인(1.6%), 독일인(0.9%)
언어	독일어
종교	로마가톨릭교(73.6%), 개신교(4.7%), 이슬람교(4.2%)
건국일	1156년 9월 17일
국가원수/국무총리	피셔(Heinz Fischer)대통령 (2004.7 취임, 임기 6년)

### 3. 독일 [Germany]



#### 국가개요

중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로맨틱가도와 경제발전의 모델인 라인강의 기적, 다양한 맥주와 게르만 민족의 나라, 더불어 동·서독간 통합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통일 과정에 소중한 교훈을 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남북으로 876km 동서로 640km에 걸쳐 있다. 지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지며 전체 면적은 356,885 km<sup>2</sup>(한반도의 약 1.6배)이다. 북부지역은 북해와 발트해에 접하고 있는 저지대이며, 중부지역은 고도의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1,000m 정도의 고원으로 삼림이 풍부한 구릉지대로 유명한 흑림 등의 대규모 산림군이 펼쳐지는 지역이다.

남부지역 또한 높은 산악지대로 알프스 기슭을 따라서 펼쳐진 고원지대로 보덴 호등 수려한 경관의 호수들이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전체 지형은 남쪽의 알프스에서 북쪽의 북해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라인강 등 주요 하천이 북쪽으로 흐르는 특징을 보여준다.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이를 주는 연방헌법에 의거해 저마다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의 국가적 업무는 연방과 더불어 적절히 나누어져 있는데, 학교제도, 문화, 대중매체 등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분야는 주의 결정권이 우선적이지만, 자연 및 환경 보호와 같은 영역에서는 연방이 법적 집행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 ■ 일반사항

국명	독일 (Germany)
위치	유럽중부
면적	357,022km <sup>2</sup> (한반도의 약 1.6배)
기후	온화, 다습(년평균 기온 9°C)
수도	베를린(Berlin)
인구	80,722,792명
민족(인종)	게르만족(99%)
언어	독일어
종교	신교(36.4%), 구교(34.6%), 기타(29%)
건국일	1949년 5월 23일 (90.10.3 동서독 통일)
국가원수 (실권자)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ck) 대통령(2012.3. 당선, 임기 5년)/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2005.11. 당선)

CAMP

## 1. 프라하시청-도시건축/개발 갤러리(CAMP)

■ 방문기관명 : CAMP - Centrum architektry

■ 방문일시 : 2019. 4. 11.(목)

■ 홈페이지 http://www.praha.camp/

### ■ 기관개요

CAMP는 새로운 건축 및 도시 계획 센터로서 프라하 개발에 관한 공개 토론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며, 프라하는 수도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방형 플랫폼 구축하였으며, 프라하 공동 기획 및 개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본 캠프" 역할을 하는 기관

### ■ 방문내용

- CAMP 기관 설명 청취
- 공간정보활용 시스템(Geopraha) 시연 확인

## ■ 주요 질의 및 응답 내용

[Q1] CAMP 건물 내부는 미술관처럼 전시장이 있는데 그 이유는?

[A1] CAMP는 기본 정보 센터 기능 외에도 대형 스크린 프로젝션, 독서실, 카페, 야외 테라스 및 공개 토론, 국내외 전문가의 공연, 워크샵 등 풍부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현대 강당이며, 매년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오며, 오늘도 대학생들의 상상력으로 전시회장이 꽉 차있다.

**[Q2]** 우리나라 토지개발 방식에 따라 환지방식이 있는데 프라하의 경우 토지개발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A2]** 프라하는 환지 방식이 없으며, 시에서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함.(대부분 유네스코 문화재에 지정되어 대규모 토지개발은 없음)

**[Q3]** 공간정보 DB 활용시스템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지?

**[A3]** 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을 통해 기본정보는 제공하고 있다. 지하시설물의 경우 중세부터 구축된 도시이기에 지속적으로 자료수집과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권한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보여줄 수는 없음

## ■ 방문 사진



[시스템 시연]

[갤러리 내부모습]



[기념사진]



[기념사진]

## 2. 오스트리아-콜핑복지시설 방문



■ 방문기관명 : Wien-Leopoldstadt - Kolping 'Gemeinsam leben'

■ 방문일시 : 2019. 4. 12.(금)

■ 홈페이지 : <https://www.gemeinsam-leben.at/>

### ■ 기관개요

오스트리아 콜핑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150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직이자 사회 개혁자인 아돌프 콜핑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며, 콜핑 협회는 전통적인 콜핑 하우스 뿐만 아니라 최근 수십 년간 설정된 원칙 특히, 비영리 단체인 비엔나-레오폴트 슈타트 (Vienna-Favouriten)와 비엔나-레오폴트슈타트 (Vienna-Leopoldstadt)는 "함께 살기"라는 Kolping Houses를 통해 노인들의 삶을 편하게 하고 세대의 공존을 촉진하고자합니다.

### ■ 방문내용

- 콜핑하우스 비엔나 기관 설명 청취
- 콜핑하우스 비엔나 시설물 확인

## ■ 주요 질의 및 응답 내용

[Q1] 콜핑 시설은 호텔급 수준인 거 같다. 여기에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A1] 먼저 콜핑하우스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며, 노인 1인당 450유로 ~ 1000유로까지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콜핑 하우스에 입주하려면 먼저 비엔나 시청에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대상자 상담과 개인주치의 소견 등 정확한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7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현재 200여명이 거주하는 데 중간 퇴소자가 있어 자리가 나면 대기 순번에 따라서 입주가 가능하다.

**[Q2] 치매환자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A2]** 변칙적 상황을 식별하는 정보분석, 그리고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하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익명화 기능도 포함하여 구축함

**[Q3] 귀사에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 것은 제품을 어떤 것 들이고, 어떤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지요?**

**[A3]** 치매 또한 등급이 7단계로 나눠지며 시청 담당자가 정확한 삼당과 진단을 통해 등급이 정해진다. 치매 또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되고 있으며 우리는 “직진 보다는 천천히 돌아가는 법”으로 응대 및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치매노인이 “승강이 앞에서 지하철 역입니까?” 물으면 “아니다”라기 보다는 “아, 그렇다. 맞다.”라고 응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판단하여 천천히 돌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 ■ 방문 사진



[기관설명 및 질의응답]



[기념품 전달]



[기념사진]



[기념사진]

### 3. 독일 - 뮌헨시청 / 자적공간정보 서비스 센터

muenchen.de  
Das offizielle Stadtportal

■ 방문기관명 : Geodaten Service Center Muenchen

■ 방문일시 : 2019. 4. 15.(월)

■ 홈페이지 : <https://www.muenchen.de>

#### ■ 기관개요

GeoDatenService 부서는 뮌헨 공동체 단위의 정밀도 높은 지도를 제작하며, 중요한 계획 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 다양한 목적을 위해 기본 지리적 데이터 제공, 현장에서 데이터 수집의 모든 과업에 매일 참여하는 기관

#### ■ 방문내용

- 도시 기본지도 및 기타지도 제작 현황 확인
- 응용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공식사이트 확인
- 항공 사진 및 오르토 포토 구축 현황 확인

#### ■ 주요 질의 및 응답 내용

[Q1] 뮌헨은 도시계획이 오래전부터 구축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측량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자료가 불일치하여 발생한 오차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A1] 뮌헨시는 1927년부터 도시계획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정확한 측량 자료 구축을 위해 30cm마다 기준점을 설치하는 등 측량기술 발달에 따른 오차는 없다고 판단한다. 이런 정교하고 정확한 자료 관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문한 것으로 생각한다.

**[Q2] 뮌헨시의 공간정보 구축 시 주안점은?**

**[A2]** 우리의 공간정보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공간정보 구축 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지와 자연보호와 문화재 등을 함께 고려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특히 뮌헨은 문화재가 많이 지정되는 있으며, 건물 정면은 놔두고 본체만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즉, 도시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에 주안점을 주고 있다.

**[Q3] 뮌헨시청은 부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필요한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는지?**

**[A3]** 현재 우리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공간정보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부서에 배포한다. 그리고 각 부서의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공동 활용 플랫폼을 구축과 함께 표준화된 데이터를 정리하였으며, 표준화된 DB에 각 부서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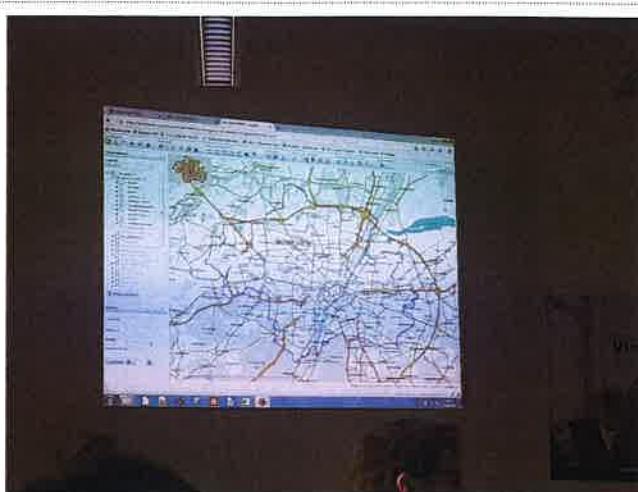
**[Q4] 데이터가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보관 중이며,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는?**

**[A4]** 도로, 건물, 길, 표지 등 360,000개 이상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3만명 공무원 중 1만 5천명은 데이터 구축을 담당하고 1만 5천명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일반인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되는 공간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계자료 등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비공개 자료는 권한 대상자를 분석하여 그 분야 맞는 권한만 설정하여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방문 사진



[담당자 설명 및 질의응답]



[시스템 시연]



[3D 프린팅]



[시청내부 전시물]



[기념품 전달]



[기념사진]

## 4. 독일 – 마인츠 주립 토지개발공사



■ 방문기관명 : Landesbetrieb Liegenschaft Und Baubetreuung

■ 방문일시 : 2019. 4. 18.(목)

■ 홈페이지 : <https://lbb.rlp.de/de/startseite>

### ■ 기관개요

부동산 및 건설 관리의 기관이 경제적 측면, 상태 속송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따라 최적화하는 기관으로 1300여명의 직원이 독일에 주둔중인 주, 연방 정부 및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건설 및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

### ■ 기관개요

- LBB기관 설명 청취
- 부동산(건물 등) 분석 시 주요사항 설명 청취

## ■ 주요 질의 및 응답 내용

[Q1] 부동산 분석 시 공간정보가 중요한데 언제 제공받는지?

[A1] 공간정보는 계획 단계에서 제공을 받으며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진행 시 공간정보, 환경, 계약사항 등등 반영하여 진행한다.

[Q1] 설명하신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A1] 환경을 접근할 때는 경제성만을 판단하지 않으며, 공적가치와 이미지 제고 등 폭넓은 관점에서 판단한다. 에너지 매니지먼트 5가지 중점 사항인 에너지 구입,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컨트롤, 에너지 소비 가이드 라인, 건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 기준 등을 기초로 매년 에너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중이다.

## ■ 방문 사진



[담당자 설명 및 질의응답]



[기념품 전달]



[기념사진]

## 1. 체코의 지적개혁



- 1918년까지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 왕조의 파세 도구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던 지적과 토지등기는 현재에도 오랜 전통으로 남아있으며, 1989년 공산정권이 무너진 후 소유권 반환, 사유화 및 경제재건설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1993년에 새로운 지적법이 공포되었다.
- 현재 체코의 부동산지적은 이전 토지지적 및 토지등기를 결합하고 있고 측량기관에 의해 유일하게 관리되는 경제 및 권리의 연합증서를 만든다.
- 지적자료들은 완전히 수치화되어 컴퓨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적자료를 이용한 농림부에 요구에 따라 농경지의 토질 자료까지 완성하고 있어, 다목적 지적측면에 배울 점이 상당하다.

## 2. 오스트리아의 복지제도



- 오스트리아는 복지수혜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권한이 강력함을 바탕으로 투명한 소득의 파악이 가능하여 부정수급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 연방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을 통한 사회 복지행정이 실현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여 국민의 소득 사회적 위치와는 상관없이 수발수당,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고, 모든 수당은 현재 가족부담조정기금으로 지원된다.

- 본인 소득의 40~50%까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임이 분명하다.

### 3. 독일의 공간정보제도



- 독일은 1807년 라인란트와 베스트팔렌 지역이 나폴레옹의 프랑스에 점령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지적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 독일의 지적조사는 봉건영주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방차원의 지적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나,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지리기본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최근 독일에서는 지적도, 지형도와 기준점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유럽연합은 환경보호 수단으로 공간정보(지리정보)를 활용하고자 하여 유럽 주요국가의 보유 공간정보를 상호 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권고 하였다.
- 지적을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에는 지형도에 비해 지적도가 도면의 축척이나 도면 내 객체의 묘사에 있어서 현실 상황을 더 자세하고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으로, 우리가 지적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참고 할만하다.

아름다운 도시, 경이로운 자연!!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유럽을 떠올리지 않을까? 유럽여행은 나 역시 수많은 하고 싶은 일중에 단연코 버킷리스트 중 첫줄이었다.

수많은 여행자들의 SNS 성지 프라하의 까를교, 뉴아트 미술의 선구자였던 구스타프 크림튼의 키스를 진품으로 간작한 벨베데레, 모차르트가 거닐던 황홀한 짤츠부르크의 야경, 정말 그림 같았던 호수 할슈타트의 마을에서의 커피, 천년된 맥주공장 뮌헨 호프브로이에서 시원 쌉싸름한 오래된 맥주 일주일 남짓 짧고도 긴 유럽은 이제 사진 속으로 돌아갔다.

본래 이 여행의 목적은 공간정보 분야의 선진 사례 체험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정책으로 접목해보자는 취지이다. 우리는 체코의 도시 건축 개발갤러리, 오스트리아의 노인복지기관, 독일의 공간정보 구축 및 서비스센터, 부동산 토지 개발 관리 공사 등 선진국의 시스템을 보고 느꼈으며, 그네들의 공간정보를 다루는 기술과 자세를 보고 배웠다.

오래된 문화유산과 도시,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 속에서 4차 산업시대에 걸 맞는 기술과 역량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맞는 우리의 자세를 알게 해준 일생 잊지 못 할 소중한 여행으로 기억될 것이다.